

김두관 출마 선언...野 대권경쟁 가열

망글서 6000여명 참석 출정식...“평등국가 만들겠다”

민주 주자들도 표발으로

민주통합당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8일 해남 망글마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 대선 후보를 향한 각축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망글마을 주차장에서 지지자 60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를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선언문에서 “한반도 최남단 망글마을은 바다를 바라보면 태평양을 바라보는 첫 마을이자, 저 강대한 유라시아대륙을 향한 힘찬 출발점이기도 하다”며 “저는 오늘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이곳 망글에서 민족의 번영과 도약을 위해, 내게 힘이 되는 나라·평등 국가를 만들기 위해 18대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은 국민 아래 김두관과 국민 위 박근혜, 국민을 섬기는 김두관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서민을 상대하는 김두관과 오만·독선·불통·최상계층과 함께하는 박근혜와의 싸움”이라며 “뺏속부터 서민이고, 아래서부터 국민과 함께 성장한 김두관이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소통의 정치, 섬김의 정치, 공감의 정치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과 특권의 독식경제를 끝내고 나눔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제는 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국가, 평등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대선 공약으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반값 등록금



민주통합당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8일 해남 망글마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이날 선언식에는 김 전 지사 지지모임과 외곽조직인 두드림, DK포럼, 모다합포럼, 생활정치포럼 등의 회원과 시민 6000여명이 참석, 행사 시작 한 시간 전부터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버스 행렬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다. /해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노후 생활 국가 보장 ▲재정분권 등 지역균형 발전 ▲한반도경제공동체 구축 등을 발표했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원혜영 전 원내 대표를 비롯해 김영록·문병호·안민석·김재은 의원,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천정배 전 장관 등이 함께했다.

김 전 지사는 연설이 끝난 뒤 의원 멘토단 등과 12월 대선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성화에 채화식을 갖고 서민 대표들과 함께 발바닥을 찍는 풋(foot)프린팅 행사도 가졌다.

이처럼 경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한 발짝 앞서 출마를 선언한 다른 대선 주자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이날 경기 일산에 있는 고양원더스 훈련장을 찾아 김성근 감독과 선수들을 만나 격려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날 공식 일정 없이 자문교수단과 만나 토론회 준비에 집중했다. ‘세계 협동조합의 날’인 전날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협동조합 난장 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한 뒤 전북 완주군청을 방문해 협동조합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능한 스마트정부’를 기조로 한 정부부처 조

직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부활 등 첨단 과학과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부처 신설 계획도 내놓았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지도가 낮은 경선주자도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비경선(컷오프)에 앞서 권역별 TV 토론회와 연설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고, 조경태 의원은 전날 경북도당 출정식에 참석한 뒤 대구·경북의 지역위원장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는 등 TK지역 민심 확보에 주력했다.

박진 의원은 “기대되는 변화 박근혜, 국민의 삶과 함께 가는 박근혜, 내

김영환 “安은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목록부담 안철수에 민주 잠룡들 공격 재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이 다시 안철수 공격에 나섰다.

안 원장은 지난 5일 김홍선 안철수 연구소 대표의 부친상 상가에서도 취재진으로부터 “대선 출마 여부를 결심했느냐”는 질문을 받아 “아니오”라고 답했다.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그의 구체적인 언급은 지난 5월30일 부산대 강연에서 “저에 대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중”이라고 말한

게 마지막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자 지난달 중순 안 원장을 상대로 까칠한 발언을 쏟아냈던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최근 다시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안 원장에 대해 “지금은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정치 경력이 미숙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저는 소년 시절부터 정치의 꿈을 품어왔다”며 “우연히 대선주자가 된 분들과 다르다”고 안 원장을 겨냥했다.

김영환 의원은 지난 6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안 원장이 대

선출마 결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데 대해 “(안 원장이) 국민에게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밝힐 때가 지났다”며 “안철수 원장은 지금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 원장은) 출마하기로 결심했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선 과정에서 (안 원장의 출마가) 상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 측은 이런 공세에 불편한 기색이 지만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유 전 총추관장은 “더 언급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새누리 박근혜 경선 캠프 슬로건·심벌 확정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용할 슬로건으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걸었다.

또한 국민 행복·소통을 상징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유력 정치인들에게 붙여지는 영문 머리글자 대신 한글 초성의 심벌(사진)을 채택했다.

박 전 위원장 경선 캠프의 변추석 미디어홍보본부장은 8일 여의

도 캠프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박 전 위원장이 사용할 슬로건과 P.I.(Presidential Identity)를 발표했다.

캠프는 시대적 과제인 변화, 박 전 위원장의 정치철학을 상징하는 민생, 유권자가 원하는 개인화 등을 키워드로 슬로건을 만들었다.

변 본부장은 “기대되는 변화 박근혜, 국민의 삶과 함께 가는 박근혜, 내

삶을 위한 선택 박근혜 등이 더해져 갈매기 원리에 의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슬로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위원장을 상징하는 이모티콘은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의 말 풍선 안에 ‘박근혜’ 이름의 초성인 ‘b g h’와 함께 스마일을 한 데 모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장병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발의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8일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 금융지주회사에 포함된 지방은행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분리매각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이 주최한 ‘광주은행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지역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선다는 점에서 지역정가와 상공인들의 기대가 크다.

장 의원은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된 광주은행 등 지역은행의 분리매각과 관련한 법률적 결립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간병서비스 건보 급여 추진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8일 간병서비스도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서비스를 포함시켜 환자와 가족들이 전적으로 떠맡았던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병원 내 간병서비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재 간병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가계 부담이 크다”라며 “환자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정몽준·이재오 지리산서 길을 묻다

새누리 비박주자들 경선 참여 오늘 최종 결단

사·노고단 산행을 거쳐 8일 현재 충청도의 한 산에 머물고 있으며 이날 저녁이나 9일 귀경할 예정이다.

정 전 대표는 9일이나 10일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결단의 시기 때마다 지리산을 찾았던 이 의원은 이번에도 지리산에서

최종 결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밤 홀로 배낭을 메고 지리산으로 떠났다가 이날 새벽 귀경한 이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마지막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9일 경선불참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김 지사는 경선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으면서도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김 지사가 결국 9일 또는 10일 중 경선 참여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정 전 대표와 이 의원의 불참으로 경선 흥행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근혜 추대 분위기가 속속 짙어지고 있다.

고 있으면서도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김 지사가 결국 9일 또는 10일 중 경선 참여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정 전 대표와 이 의원의 불참으로 경선 흥행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근혜 추대 분위기가 속속 짙어지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에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300~35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클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기준청구요금(용량별 kWh/월)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월)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월)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월)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월)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월)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월)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월)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신청하신나 태양광센터입니다. 해마다에너지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입주할 아내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

경매투자

- ▶실전경매 배우실 분
- ▶교육 / 임장비등 550만원
- ▶특수물건만 취급
- ▶배우면서 투자가능

투자자모집

- ▶낙찰받은 경 / 공매 물건
- ▶근저당설정 / 가등기로 보장
- ▶년10~30% 수익률
- ▶기간 : 1년정도

주 |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